

# 韓·英語의 狀態表現 比較

— 英語教育의 觀點 —

康 壽 彦

## 〈目 次〉

I 序 言	V 狀態의 素性과 進行相
II “be”와 “이다/있다”	VI 英語 狀態表現의 例文 分類
III 動詞의 素性分類	VII 結 言
IV 狀態의 素性과 完了相	Summary in English

## I 序 言

母國語의 능력과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韓國人에게 韓國인 教師가 英語를 가르치고 있는 教育 現場에서는, 어떤 教授法을 쓰고 있든지간에 두 言語가 意識的으로 또는 無意識的으로 끊임 없이 對照, 比較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sup>1)</sup> 이러한 mental translation의 過程에 있어서 學習者를 當惑시키는 英語 表現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a. 5分 後에 돌아오겠다.  
b.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c.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d. 그 병에는 우유가 들어 있다.

- (2) a. I will come back in five minutes.  
b. He sings very well.  
c. We heard someone knock at the door.  
d. \*The bottle is containing milk.

\* 이 논문은 1980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것임.

1) cf. 宋堯仁(1978) “英語教育: 理論的 Bandwagon과 反理論的 Backlash”, 『영어교육 제16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p.5-7.

- (3) a. I'll *be back* in five minutes.  
 b. He *is* a good singer.  
 c.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d. The bottle *contains* milk.

국문 (1)의 각 文에 對應하는 英文은 한국적 發想으로는 의례히 (2)처럼 될 것 같지만 (물론 (2 d.)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文法的이고, 실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實은 (3)과 같이 表現되는 것이 보통이며, 또 (3)이 훨씬 自然스러운 英文이다.

本稿에서 말하는 狀態表現이란, 어떤 事象을 (1) (2)처럼 動作·過程으로 파악하지 않고, (3)처럼 靜止 狀態로 寫像하는 표현을 말한다.

대체로, 韓國語는 어떤 事象을 볼 때 그 事象의 變化 過程의 出發 原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視線을 갖고 있는 반면, 英語는 눈 앞에 전개되는 狀態 또는 存在를 그대로 靜止的으로 言語에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本稿의 목적은 이와 같은 韓·英語 사이의 視点의 차이를 論證하는 데 있다. 그런데, 狀態表現이란 결국 Aspect의 觀點에서 말하는 “狀態動詞”(Stative verb)<sup>2)</sup>를 중심으로 하는 述部表現이기 때문에, 論述의 순서는,

첫째, 韓·英語의 狀態動詞의 문제점을 살피고,

둘째, 狀態的 素性和 韓·英語의 進行形 (“-고 있다” : be V-ing), 完了形 (“-어 있다” : have V-en<sup>3)</sup>)을 對照해 보고,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基礎的 狀態表現을 정리·분류하여 韓·英語 사이의 言語的 視点의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be”와 “이다/있다”

2.1. 事件動詞와 狀態動詞 무릇 이 宇宙의 모든 現象은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지만, 그 變化의 時間的 分布 또는 所要 時間의 長短에 따라 인간에게는 “變化”(動作·過程)로 의식되기도

2) 本稿에서 狀態動詞라고 말할 때, 英語의 경우에는 動詞와 形容詞를(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의 V範疇에 해당), 韓國語의 경우에는 形容詞는 물론이고 指定詞, 存在詞까지 포함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cf. “國語의 形容詞는 西歐語의 그것과 性質이 매우 다르다. 形態的으로는 거의 動詞와 같은 것이어서, 일론 分揀해 내기가 어려운 程度이다. …그러므로, 國語의 形容詞는 西歐語의 見地에서 본다면 틀림 없는 動詞이며, 그러한 意味의 形容詞에 對比할만한 것은 따로 無變化語의 冠形詞란 것이 있다.” - 金敏洙(1960), 「國語文法論研究」, 서울: 通文閣, p.218.

3) “-고 있다”는 進行의 뜻 외에 여러가지 다른 의미도 갖고 있으나 便宜上 進行形이라 부르고, “-어 있다”는 完了形이라 부르기로 한다.

하고 “無變化”(狀態)로 의식되기도 한다. 崔昌烈 교수는 그의 「國語動詞의 意味構造」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의식하는 概念의 세계는 어떤 事物의 狀態와 되어지는 事件 곧 非狀態의 두 部分集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非狀態라는 集合은 다시 過程과 動作이라는 두 下位 部分集合으로 나누인다. 이 概念의 세계를 記述하는 動詞는 이러한 기본적 선택 단위에 따라서 狀態動詞, 過程動詞, 過程·動作動詞, 動作動詞로 기본 動詞의 型을 구분할 수 있다.”<sup>4)</sup>

G. N. Leech도 時制와 相(Aspect)의 意味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동사의 두 가지 종류, 곧 事件動詞(Event verb)와 狀態動詞(State verb)의 구별을 우선 措定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sup>5)</sup>

그러나, 現實으로는 주어진 文이 [+Stative]의 特性을 갖고 있는지, [-Stative]의 特性을 갖고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微妙한 borderline case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어떤 文의 命題가 [+Stative]라는 特性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命題에 포함되는 動詞가 「狀態」를 나타내는 狀態動詞(State verb)라야 할 것이며, 반대로 [-Stative]의 特性을 지니는 命題에 있어서는 거기에 포함되는 動詞가 「事件」을 나타내는 非狀態動詞 (Nonstative verb)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非狀態動詞가 들어 있는 命題가 모두 [-Stative]라는 特性을 지닌다고 단정해 버릴 수는 없다.

- (4) a. The sun *sets* in the west.  
 b. The Hudson *flows* into New York Bay.  
 c. War *solves* no problem.

- (5) a. 해는 서쪽으로 진다. (<지다)  
 b. 허드슨강은 뉴욕灣으로 흘러 들어간다. (<흐르다)  
 c. 戰爭이 문제를 解決할 수는 없다. (<해결하다)

위의 文章에 포함되어 있는 動詞는 韓·英語 모두 非狀態動詞이지만, 이 文들은 이른바 “不變의 眞理”를 나타내며, 그 命題는 「事件」 또는 「事件이 反復」을 나타내기 보다는, 「狀態」를 나타내내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4) (5)의 각 文章은 이른바 Leech의

4) 崔昌烈(1979)「國語動詞의 意味構造」, 「人文科學論叢 第1輯」, 全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p.16.

5) Leech, G. & N. Svartvik, J.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p.63. cf.

“Broadly, verbs may refer either to an event (*i.e.* a happening thought of as a single occurrence, with a definite beginning and end), or to a state (*i.e.* a state of affairs which continues over a period, and need not have a well-defined beginning and end).”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p.63.

#### 4 는 문 집

非限定的 用法(Unrestrictive use)<sup>6)</sup>으로서 그 述部表現은, 비록 非狀態動詞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主語의 反復의인 動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主語의 屬性(attributes)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不變의 眞理” 외에도, 다음의 (6) (7)과 같이 非狀態動詞가 主語의 特質이나 職業 등 屬性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는 文은 역시 ‘狀態文’으로 볼 수 있다.

- (6) a.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b. He *teaches* English at high school.  
c.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닌다.  
d.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6)의 각 문장을 狀態文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文章들은

- (7) a. She *is* a very good speaker of English.  
b. He *is* a teacher of English at high school.  
c. 그 아이는 학생이다.  
d. 그는 영어 선생이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 (8) a. He rises early in the morning.  
b.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

와 같은 文인 경우에는 “an early riser” (일찍 일어나는 사람)라는 것이 主語의 特質을 나타내는 것인지, 혹은 主語의 暫定的인 習慣을 말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6)과 (7)에 준해서 狀態文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主語의 反復의 行爲를 나타내는 反復的 “事件文”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sup>7)</sup>

6) Leech는 그의 著書 *Towards a Semantic Description of English*(1969)와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1971)에서 “狀態를 나타내는 非限定的 用法”과 “習慣的·反復的 事件”을 나타내는 習慣的·反復的 用法를 區別하고 다음과 같은 例文을 들고 있다.

① 非限定的 用法 (狀態): John *knows* the answer. | We *live* in London. | Honesty *is* the best policy. | ② 習慣的·反復的 用法(事件): I *buy* my shirts at Harrod's. | He *walks* to work.

7) 國語에서는 ① 反復的인 事件과 ② 習慣的인 事件을 區別하여, 前者는 “事件”으로 보고, 後者는 “狀態”로 보고 있는 것 같다. cf. 서정수(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분석” 『문법연구 제3집』, pp.105-106.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허용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pp.366-367.

이렇게 [+Stative]와 [-Stative] 가운데 어느 쪽 特性을 지녔느냐 하는 것은 斷定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는 것이다.<sup>8)</sup>

서정수 교수도 國語의 用言을 [+Stative]와 [-Stative]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어떤 用言은 일반적으로 狀態性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非狀態性이 되는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sup>9)</sup>

그러나, 거의 예외없이 모든 문장에 [+Stative]의 特性을 부여하는 狀態動詞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典型的인 것은 英語의 “be” 動詞와 韓國語의 指定詞 “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be”와 “이다”는 똑같이 主辭와 賓辭라는 두 가지 요소 사이의 “關係概念”을 나타내는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이 “關係概念”이라는 機能은 다시 細分할 수 있으며, 그 細分된 機能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動詞類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關係概念”을 나타내는 語彙와 形式素를 출발점으로 삼아 韓·英語의 狀態動詞와 그들의 統辭的 素性, 意味的 素性を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 關係概念의 表現 두 가지 要素 사이의 “關係概念”을 나타내는 동사의 機能을 Nida의 方式<sup>10)</sup>으로 細分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9) a. Beauty is truth, truth beauty. (Keats)……同一性  
 b. Mary is a beauty.……類의 構成分子  
 c. Mary is beautiful.……固有의 性狀  
 c. Mary is beautiful today.……事物의 狀態

위에 적은 機能은 실은 “be” 動詞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後續하는 補語 부분의 성격이 그러한 기능을 성립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英語에서는 이 “be” 動詞와 代替할 수 있는, 곧 “be”의 延長線에 있는 狀態動詞가 語彙面에서 매우 풍부하지만, 韓國語에서는 形容詞를 제외하면 指定詞 “이다”와 存在詞 “있다” 두 개뿐이다. 이러한 語彙의 貧弱性を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에어에서는 Aspect 形式素라고 할 수 있는 “~고 있다”, “~어 있다”와 일부 「非狀態動

8) “The same verb can change from one category to another, and the distinction is not always clear: *Did you remember his name?* could refer either to a state or to an event.”— G. Leech & J. Svartvik (1975), *op. cit.*, p. 63.

9) 서정수 (1976), *op. cit.*, p. 98.

10) Nida, E. A. (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11) (RHD)는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 The Unabridged Edition*의 略稱임. 그 밖에 例文에 出處 표시가 없는 것은 國內版 英韓辭典에서 引用한 것임.

詞」를 文脈에 의존시켜 입식 그 기능을 代行시키고 있다.

(10) 同 一 性

- a. Two plus two *is/makes* four. (RHD)<sup>11)</sup>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넷이 된다.
- b. Money *is 'means* everything to him. (RHD)  
그에게는 돈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뜻한다.

(11) 類의 構成分子

- a. The prizes in the game *are/consist of* medals and diplomas.  
그 競技大會의 賞은 메달과 賞狀이다 /~으로 되어 있다.
- b. He *belongs* here. (RHD)  
그는 이 곳 사람이다.
- c. His superiority over other learned men *consists chiefly in* what may be called the art of thinking. (RHD)  
그가 다른 學者들보다 뛰어난 점은 이른바 思考 技術이라는 面이다 /面に 있다.

(12) 固有의 性狀(상태의 시작과 끝을 前提하지 않는다)

- a. He *is* particular about his food.  
그는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다.
- b. The highway *curves* here to the left.  
道路는 여기에서 왼 쪽으로 구부러지고 있다.
- c. She *resembles* her mother in her small build. (RHD)  
작은 몸집이 어머니를 닮았다.
- d. Don't *be* absurd.  
허튼 소리 하지 말라.

(13) 事物의 狀態(상태가 인젠가 가서는 끝나는 것을 前提한다)

- a. The promise still *holds*.  
그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다.
- b. He *remains* firmly opposed to the use of atomic weapons. (RHD)  
여전히 核武器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 c. I'm *with* Sears, Roebuck and Co. (MBC 1: 15)<sup>12)</sup>  
씨어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關係概念”을 보이는 英語와 韓國語의 表現 形식을 對照시켜 보면, 대략 다음과 같  
이 된다.

12) (MBC 1: 15)는 민병철(1980), 「생활영어」 시카고 영어연구원, 제1권, p.15를 뜻함.

(14) 英語 :

be 또는 狀態動詞 { N  
Adj  
Prep+N

韓國語 :

N+ { N이다.  
Adj  
V-어 있다. V-고 있다.  
-았- (過去 또는 完了形)  
되다.  
-에 있다.

이렇게 對照하여 보면, 영어에는 動詞 자체가 [+Stative]인 語彙가 매우 많지만, 韓國語에는 “關係概念”에 관한 限, 순전한 動詞의 語彙 項目으로서는 거의 全無한 形편이고, 形容詞(存在詞 포함)와 指定詞 “이다”를 제외하면, 주로 “-어 있다” “-고 있다” 등의 Aspect 形式素가 “關係概念”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關係概念”의 表現 比較에 있어서 特異한 것은, 英語의 繫詞的 狀態動詞에 대하여 過去形 또는 完了形이라고 불리우는 “-았-”이 對應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非狀態動詞인 “되다”가 對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以下 (2-3)에서는 “-았-”을, (2-4)에서는 “되다”를, (2-5)에서는 存在詞를 韓·英語이 比較라는 觀點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3. “-았-”의 [+Stative] 원리 한국어의 時制에서는 「때」를 指示하는 機能 외에 完了·未完了相을 指示하는 Aspect的 機能이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特有한 성질로서, 完了相을 指示하는 것이 過去形 {-았-}이며, 未完了相을 指示하는 것이 現在形 {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았-}은 過去時와 完了相 가운데 그 어느 쪽이든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그 “完了”는 단순한 完了에 그치지 않고 “完了된 結果가 現在의 狀態로 持續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sup>13)</sup>

13) 南基心은 ‘-았-’은 어떤 동작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을 보인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例文을 들고 있다.

네 옷에 흙이 묻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았다.

저 아이는 누구를 닮았느냐?

시장에 불나물이 나왔다. cf. 南基心(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관한 研究」, 塔出版社, p.9.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單純過去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는 제 아내를 노려보았다.





자네도 67歲가 되기 까지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될 거야.

b. He sold papers until he *was* fifteen. -Saroyan.

15歲가 될 때까지 신문을 팔고 있었다.

c. My son wants to *be* a policeman when he grows up. -English 900

내 아들은 크면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지금까지 살핀 “關係概念”의 表現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Gallapher의 “無時制論”이다.<sup>15)</sup> Gallapher는 表層構造의 時制形式은 深層에 있는 時間副詞로부터 copy(寫像)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無時制(tenseless)의 文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17) a. John is a man. (\*John is a man right now.)

b. Jonh works hard. (\*John works hard now.)

c. Ducks are animals. (cf. \*Ducks are animals now.)

d. John has strong arms. (cf. \*John has strong arms now.)

처럼, 時間副詞가 들어 가면 意味가 바뀌어지거나 “非文”이 된다. 곧, 狀態的(Stative)表現과 習慣的(Habitual)表現은 深層構造에 있어서도 時間副詞를 갖지 않는 “無時制”의 文으로 보고 있다.

Gallapher는 또한

(18) a. The man who sold the house knew more languages (\*at noon) than anyone else. - Gallapher, 1970.

b. The man who answered the telephone was Henry's brother (\*last week). - *ibid.*

와 같은 文의 主節도 無時制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이들 文의 主節은 (17)의 文과 마찬가지로 狀態的 表現이며, 따라서, 그 動詞는 비록 表層에 過去形을 취하고 있지만, 過去時를 나타내는 時間副詞와는 共起할 수 없다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19) John said that the Washington Monument was heavy(\*in 1943). - *ibid.*

와 같은 文의 從節도 같은 이유로 無時制로 보고 있다. (18) (19)의 過去時制는 다만 先行하는 過去形 動詞 사이에 Tense Agreement 變形이 적용된 結果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15) cf. Gallapher, M. J. (1970) "Adverbs of Time and Tense"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Dept. of Linguistics, Univ. of Chicago, pp.220-225.

있다.

이 Gallapher의 無時制論은 Lakoff의 虛偽時制(false tense)<sup>16)</sup>, Anderson의 幽靈現象(ghosting)<sup>17)</sup>과 一脈相通하는 주장이지만, “關係概念”을 나타내는 狀態的 表現은 深層에 있어서 時制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達見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2.5. 存在詞의 [+Stative] “be”의 또 하나의 機能은 存在를 나타내는 일이다. 이 存在를 나타내는 “be”에 對應하는 한국어는 “있다”라는 이른바 存在詞이다.

- (20) a. 나는 思考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b. I think, therefore, I *am*. —Descartes.

- (21) a. 제주도에는 景致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 두 군데 있다.  
b. Cheju-Do *has* two spots with surpassingly beautiful views. —The Islander.  
c. There *are* two spots with surpassingly beautiful views in Cheju-Do.

朴良圭 교수는 “所有와 所在”라는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8)</sup>

“國語에는 이 所有를 표현하는 말이 따로 없고, 存在를 뜻하는 用言「있다」— 또는 把持를 뜻하는 用言「가지다」로써 대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B가 A의 所有者라고 하는 것은 B가 A의 處所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文法의 側面에서 이 두 개념을 각각 특징지우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듯하다. 國語에 있어서 이들은, 적어도 「在」와 「有」에 모두 「있다」를 對當시키는 만큼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所有와 存在를 表裏一體를 보고 있음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음의 例文으로 알 수 있다.

- (22)<sup>19)</sup> a. There's a drawback to this plan for redecorating school.  
b. This plan for redecorating school has a drawback.

英語에서는 所在의 場所(즉 處格語)가 有情物/animate noun)인 경우에 한하여 b.型 表現

16) Lakoff, R. (1970) “Tense and Its Relation to Participants” *Language* 46, pp.838-849.

17) Anderson, J. (1973) “The Ghost of Time Past” *Foundations of Language* 9-4, pp.481-491.

18) 朴良圭(1975), “所有와 所在”, 「國語學3」, 塔出版社, p.93.

19) 이 두 例文은 Clark, W.L. (1963), *Spoken American English—Advanced Course*(日新社 翻刻版)에서 引用.

인 have構文이 義務化된다. 이렇게 “非限定的 用法”<sup>20)</sup>에 있어서, have는 存在를 나타내는 be動詞의 延長線上에 있으며, “own”, “possess”, “lack”, “abound” 등과 더불어 「所在」를 보이는 狀態動詞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의 非限定的 用法에 있어서는, 性狀形容詞와 Aspect 形式素를 제외하면, “있다/없다”가 「所在」를 나타내는 語彙項目의 全部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所在」를 보이는 文型 “N<sub>1</sub>에(게) N<sub>2</sub>가 있다/없다”를 擴大하여 “N<sub>1</sub>에(게) N<sub>2</sub>가 V [+Stative]/Adj” 까지도 存在文이라고 규정하고, 이 定形에 해당하는 韓·英語를 對比시켜 본다. 이 廣義의 存在文은 ①有無와 多少 ②必要와 重要度 ③對外知覺과 感情 등 세 가지 種類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 (23) 有無·多少

a. 房에는 창문이 셋 있다.

This room *has* three windows.

b. 이 江에는 물고기가 많다.

Fish *abound* in this river.

c. 教會 뒤 쪽에 예일大學이 있다.

Behind the churches *lies* Yale University.

d. 우리 學校는 언덕 꼭대기 위에 있다.

Our school *is situated* on the top of the hill.

Our school *stands* on a hill.

e. 구름 위에 에베레스트山은 솟아 있다.

Mt. Everest *rises* above the clouds.

## (24) 必要·重要

a. 그 집에는 페인트를 칠할 必要가 있다.

The house *needs* painting.

b. 그 일에는 忍耐가 必要하다.

That work *wants* patience.

c. (우리에겐) 1分1秒가 重要하다.

Every minute *counts*.

20) 現在를 中心으로 하여 過去로부터 未來에 걸쳐서 “不定的 期間”동안 계속되는 狀態를 보이는 用法(unrestricted use). cf. Leech, G.N. (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7-13.

21) 다음과 같은 (語彙아닌) aspect 形式素는 [非限定的] “所在”를 나타내고 있다.

{-았-}: 그에게 돈이 남았을까?

그분은 돈을 많이 가졌다.

{-고 있다}: 그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25) 對外知覺·感情

a. 저에게는 그가 얼마나 피로운 處地에 있는지 理解가 잡힌다.

I understand what a painful situation he is in.

b. 나에게는 마치 이 나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I feel as if this tree knows everything.

c. 나에게는 너의 幸運이 부럽구나.

I envy you your good luck.

d. 나에게 호랑이는 안 무섭다.

I do not fear tigers.

이렇게 對比시켜 보면 “有無·多少”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英語에서는 存在의 모습을 have, abound, lie, stand, rise 또는 be+Adj 등으로 表現하여, 文体에 變化와 色彩를 주고 있지만, 한국어의 語彙項目은 “있다/없다” “많다/적다” 정도이다. 이러한 語彙의 貧困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어 있다” “—고 있다” “—았—” 등의 Aspect 形式素이며, 이들이 「動作이 結果로서의 狀態가 存續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韓國語의 存在詞 “있다”의 否定은 “없다” 뿐이지만, 英語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動詞와 마찬가지로 副詞(not, never, hardly 따위)를 써서 動詞를 否定하는가 하면, 또한 名詞 자체를 否定하여 “zero인 것이 있다” 式으로 表現하기도 한다.

(26) a. There are none on the desk.

책상 위에는 하나도 없다.

b. I have no children.

나에게는 子息이 하나도 없다.

對外知覺·感情의 表出에 있어서도 韓·英語 사이에는 人稱에 관련된 差異點이 있다. 영어의 경우, (25)의 각 例文의 主語를 you, he, she, they등의 다른 人稱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있어서는, “非限定的” 現在形으로 對外知覺·感情을 表出할 수 있는 것은 處格 자리에 오는 “感情·知覺의 主体”가 1人稱의 경우뿐이다.

(27) a. 나에게는 너의 幸運이 부럽구나.

b. \*그에게는 너의 幸運이 부럽구나.

c. 그에게는 너의 幸運이 부러운 것이다.

d. 그는 너의 幸運을 부러워 하고 있다.

끝, 1人稱이 아닌 다른 人稱에 있어서는 (27c.) 처럼 “그에게는 너의 幸運이 부러운 것”이라  
고 일단 全体를 「~것」으로 名詞化하고, “이다”를 덧붙여서, 第3者의 感情이나 知覺을 話者가  
설명·해설하는 形式을 취한다. 그밖의 方式으로는, (27d.) 처럼 感情의 主体를, 處格이 아  
니라, 主格으로 바꾸고, 形容詞를 動詞化하는 “~하다”를 써서 感情·知覺이 客觀化된 複合  
動詞를 만들고, 다시 “-고 있다”의 Aspect 形式素로 「狀態」임을 표시하여, 第3者의 現在의  
感覺을 報告하는 形式도 있지만<sup>22)</sup>, 存在文 내지 處格構文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論及하지 않기로 한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處格構文의 한국어 形容詞와 動詞는 대부분 영어의 狀態動詞의 單純形  
에 對應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 (28) a.  $N_1$ 에게는  $N_2$ 가 滿足이다.  
 $N_1$  is satisfied with  $N_2$ .  
 b.  $N_1$ 에게는  $N_2$ 가 마음에 든다.  
 $N_1$  is pleased with  $N_2$ .  
 c.  $N_1$ (=나)에게는  $N_2$ 가 기쁘다/슬프다.  
 $N_1$  is rejoiced at  $N_2$ / $N_1$  is grieved at  $N_2$ .  
 d.  $N_1$ (=나 以外)가  $N_2$ 를 기뻐한다/슬퍼한다.  
 $N_1$  rejoices at  $N_2$ .  
 $N_1$  grieves at  $N_2$ .

이렇게 處格構文의 形容詞와 動詞가 英語의 狀態被動態에 對應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는 c. 와 d. 의 例처럼 狀態動詞와 狀態被動態 양쪽에 對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어는 處格構文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英語에서는 狀態動詞로 感情  
·知覺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29) a.  $N_1$ 은  $N_2$ 를 좋아한다./싫어한다.  
 $N_1$  likes/hates/detests  $N_2$ .  
 b.  $N_1$ 가  $N_2$ 를 알고 있다./잊고 있다./기억하고 있다.  
 $N_1$  knows/forgets/remembers  $N_2$ .  
 c.  $N_1$ (=나)는  $S_1$ 라고 생각한다.  
 $N_1$  thinks  $S_1$ .  
 d.  $N_2$ (=나 以外)는  $S_1$ 라고 생각하고 있다.  
 $N_2$  thinks  $S_1$ .

22) cf. 李翹燮(1978), “被動性 形容詞文의 統辭構造”, 「國語學6」, 塔出版社. p.68.

英語의 構造만을 고려할 때, 處格 構文에 對應하는  $N_1$  understand  $N_2$ (cf. 저에게는…… 理解가 잡니다)와 處格 構文에 對應하지 않는  $N_1$  remember  $N_2$ (cf. 저는…… 記憶하고 있습니다.) 사이에 어떤 差異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들도 have 動詞와 같은 系列에 속하는 “存在를 나타내는 動詞”의 variations이라고 본다면, “關係概念”과 “存在”를 보이는 狀態動詞는 다음과 같이 分類·對比시킬 수 있다. 狀態를 나타내는 定形動詞(Finite Verb) 以外の 것은 괄호 속에 넣어서 구별한다.

(30)

(1) 關係概念	a. 同一性	be, equal, mean, signify, etc.	이다, (같다) 뜻한다 (된다)
	b. 類의 構成分子	be, consist (of), belong (to) comprise, etc.	이다, (되어 있다) (속하고 있다)
	c. 固有의 性狀	be (fat), look (like), resemble, curve, etc.	(살쥘다), 닮다 (닮았다), 구부러지고 있다.
	d. 事物의 狀態	be (angry, hungry, damp), remain, seem, look, hold, smell, taste (good), etc.	(화물내다) (시강하다) (속속하다) (머물러 있다) (보인다), (살아 있다) (냄새가/맛이 좋다)
(2) 存在	a. 有無·多少	be, exist, live, have, own, possess, lack, abound, lie, stand, be (located, situated), etc.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가지고 있다), (가졌다) (서있다)
	b. 必要·重要	be (necessary, important), need, want, require, count, etc.	(필요하다) (중요하다) 요한다.
	c. 對外知覺 感情	have (a feeling), feel, annoy, want, fear, pride, understand, comprehend, perceive, etc.	(느끼고 있다) (느껴/여겨진다)·어 한다(부러워/기뻐/무서워/미워/싫어/싫어 한다) (이해가 간다)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對比시켜 보면, 定型動詞(Finite Verb)로서의 狀態動詞는 한국어에는 매우 드물고, 形容詞와 Aspect 形式素 “V-고 있다”, “V-어 있다”/ “V-았-”등으로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對外知覺·感情을 나타내는 狀態動詞만은 形容詞에서 派生되는 “어하다”型的 動詞가 많이 造語되어, 그 語彙 項目의 數호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끈다.

- (31) a. 기쁘다 → 기뻐하다  
 b. 무섭다 → 무서워하다  
 c. 밉다 → 미워하다  
 d. 두렵다 → 두려워하다  
 e. 싫다 → 싫어하다  
 f. 즐겁다 → 즐거워하다

또한 動作을 否定하는 助動詞 “말다”, “아니하다” 등이 狀態動詞의 語彙 부족을 크게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2) a. *Stay* where you are.

움직이지 말아라.

b. He *kept* the secret all his life.

그는 그 秘密을 일생 동안 말하지 않았다.

c. *Keep* the soup hot.

수우프를 식히지 않도록 해 두어라.

d. I *sat still*, feeling the cold sweat seeping through my clothes.

나는 선잠이 속옷에 스며 드는 것도 꼭 참고, 움직이지 않았다.

動作 「움직이다」의 否定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미 動作이 아님은 自明하다. 英語에 있어서도 “非狀態動詞의 否定”은 狀態動詞와 같은 統辭의 特性을 갖는다.

(33) a. He  $\left\{ \begin{array}{l} \text{began} \\ \text{started} \\ \text{quit} \\ \text{stopped}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reading the letters.} \\ \text{smoking.} \\ \text{eating the soup.} \end{array} \right.$

b. \*He  $\left\{ \begin{array}{l} \text{began} \\ \text{started} \\ \text{quit} \\ \text{stopped}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knowing the language.} \\ \text{owing a Cadillac.} \\ \text{being sick.} \\ \text{not reading the letter.} \\ \text{not smoking.} \\ \text{not eating the soup.} \end{array} \right.$

곧, begin/start/quit/stop의 補文인 動名詞가 狀態動詞이면 “非文”이 되지만, 非狀態動詞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否定形이면, 역시 “非文”이 되고 마는 것이다.

### Ⅲ 動詞의 素性分類

영어는 語彙目錄에 많은 狀態動詞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에는 固有的 語義에 있어서 狀態動詞임이 명확한 語彙는 매우 적은 것 같다. 몇 가지 分類의 例에 나타난 狀態動詞를 보면,

(34)<sup>23)</sup> 상태성 [+stative] 용언

동사: 알다, 이해하다, 놀라다, 느끼다, 지치다, 살다 따위  
 존재사: 있다, 계시다, 없다. 따위  
 형용사: 예쁘다, 높다, 붉다, 좋다, 정직하다. 따위  
 지정사: (집)이다.

(35)<sup>24)</sup>

하다 動詞 — { 狀態性 [+stative] 다행하다, 확실하다. 따듯하다.  
 { 過程性 [+process] 변화하다.  
 非狀態性 — { 動作性 [+action] 운동하다, 파피하다.

(36)<sup>25)</sup> [+상태, +결과] 감사하다, 느끼다, 믿다. 바라다, 사랑하다, 살다, 알다, 이해하다,  
 희망하다. …… 등

[+상태, -결과] 계시다, 듣다(약이~), 모르다, 모자라다, 없다, 있다. …… 소위 形容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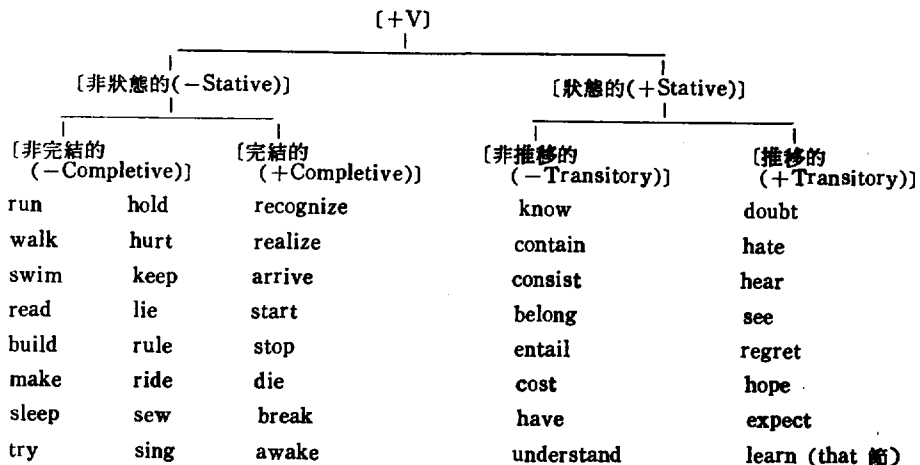
결국, 名詞의 派生語인 “하다” 動詞를 제외한다면, 위의 例로 인용된 狀態動詞의 수효는 “알다, 놀라다, 느끼다, 지치다, 살다, 믿다, (약이)듣다, 모르다, 모자라다”의 아홉가지 뿐이다. 이 制限된 例는 한국어 狀態動詞의 語彙上的 貧困을 보여 주는 一面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英語의 狀態動詞는 Macaulay의 動詞 分類의 例<sup>26)</sup>에 나타난 것만도 31 語가

23) 서정수(1976), *op.cit.*, p.98.

24) 서정수(1975), 「동사“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p.13.

25) 油谷幸利(1978), “現代韓國語의 動詞分類 -aspect를 中心으로-”, 「朝鮮學報 第87輯」, 奈良縣 天理市:朝鮮學會, pp.18-19.

26) 그의 動詞分類는 다음과 같다.(cf. Macaulay, R.K.S. 1971. *Aspect in English*, Ph.D. dissertation,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127).





된다. 게다가 그 예에는 使用 頻度가 높고, 쉽사리 想起될 수 있는 love, believe, dislike, rule, possess와 같은 狀態動詞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英語의 狀態動詞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證左라 할 수 있다.

Vendler는 네 개의 範疇를 설정하고, 이 4 個 範疇는 모든 動詞를 망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37) Vendler의 4 範疇

a, 活動 (Activity)

run, walk, swim, push (a cart), pull (a cart), etc.

b. 遂行 (Accomplishment)

paint (a picture), make (a chair), build (a house), write (a novel), read (a novel), deliver (a sermon), give (a class), attend (a class), play (a game of chess), grow up, get ready (for something), etc.

c. 完結 (Achievement)

recognize, realize, spot, identify, lose, find, reach (the summit), win (the race), cross (the border), start, stop, resume, die, etc.

d. 狀態 (State)

have, possess, desire, want, like, dislike, love, hate, rule, dominate, know, believe, etc.

이 分類의 基準은 그의 時間 圖式(time schema)에 의한 것으로, 곧 다음과 같은 4개의 類한 質問에 나타나 있다.

bear	speak	become	like	receive
burn	creep	begin	want	experience
come	draw	bite	taste	feel
dig	dream	burst	sound	suffer
drink	stand	catch	smell	sicken
dwel	fight	choose	seem	weaken
drive	grow	fall	desire	age (=become old)
eat	spin	forget	preclude	etc.
hang	spread	forgive	etc.	
tell	talk	hit		
think	etc.	lose		
lead		etc.		

27)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 Press, pp.97-121.

a. (活動)와 d. (狀態)에는 For how long did you……? 가 해당되고, b. (遂行)에는 How long did it take you to……? 가 해당되며, c. (完結)에는 At what time did you……? 가 가능하다. 이것을 실지로 適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8) 「a. 活動」의 경우 :

- a. For how long did you swim?  
I swam for twenty minutes.  
b. \*How long did it take you to swim?  
\*It took me ten minutes to swim.

(39) 「b. 遂行」의 경우 :

- a. \*For how long did you make the chair?  
\*I made it for three days.  
b. How long did it take you to make the chair?  
It took me three days to make the chair.

(40) 「c. 完結」의 경우 :

- a. \*For how long did you reach the summit?  
\*I reached the summit for two hours.  
b. At what time did you reach the summit?  
I reached the summit at five o'clock.

(41) 「d. 狀態」의 경우

- a. For how long did you hate her?  
I hated her for two years.  
b. \*How long did it take you to hate her?  
\*It took me two years to hate her.

Vendler는, 進行形이 「a.의 活動」동사와 「b.의 遂行」동사에는 可能하지만, 「c.의 完結」동사와 「d.의 狀態」동사에는 不可能함을 지적하고 있다. 意味論上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만약 한 時間 걸려서 편지 쓰기를 “遂行”한다면, 그 동안에는 언제나 I am writing a letter.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頂上 征服을 “完結”하는데 세 時間 걸린다고 한다면, 그 동안 언제이건 \*I am reaching the summit.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 分類에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28)</sup> 動詞의 素性 分類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아진다.

28) 이를테면, 重病患者가 앞으로 3時間 밖에 살지 못할 경우, 그 3時間 동안에는 언제나 “The patient is dying.”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die는 c.의 “完結”동사에 해당된다. 그 밖에 “完結”동사의 進行形은 가끔 나타난다.

例: The team is winning the game. The enemy is now crossing the border.

英語에 있어서 이러한 動詞의 固有 素性은 have V-en (Pred)<sup>29)</sup>, be V-ing (Pred)의 形態와 相關 關係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이 關係를 無視하여 文을 生成하면 “非文”이 된다.

- (42) a. \*The bottle is containing milk at this very moment.  
 b. \*I've just hated my neighbor.

- (43) a. \*He was waking up for three days.  
 b. He has just woken up.

(42)는 [狀態的 (+Stative)] 素性을 가진 contain, hate가 Prog(進行形)와 Perf(完了形)에 붙지 않는 예이며, (43)은 [完結的 (+Completive)] 素性을 가진 wake up가 Prog와 붙지 않는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相關 關係는 現實의으로는 (42)와 (43)처럼 간단하지 않다. 主語, 目的語의 NP 素性이라든지 時間副詞의 素性 등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서 進行形, 完了形의 可能性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IV 狀態的 素性和 完了相

### 4.1. 狀態的 素性和 “-어 있다”

한국어의 完了形 “-어 있다”는 動作의 結果로 생긴 “狀態”를 가리킨다고 이미 말했거니와, 이 完了形 “-어 있다”에 모든 動詞가 다 쓰이는 것은 아니다. 他動詞는 完了形에 전혀 쓰일 수 없으며, 自動詞 中에는 쓰일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다.

- (44) a. \*철수가 집 한 채를 지어 있다.  
 b. \*철수가 小說 한 편을 써어 있다.  
 c. \*철수가 세탁을 짜아 있다.

윗 文은 他動詞가 “-어 있다”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非文”이다. 그러나, 他動詞의 경우, “있다”대신 “놓다”, “두다”가 쓰여서 完了의 意味를 나타낼 수 있으며<sup>30)</sup>, 또한 他動詞의 語

29) Pred →  $\left\{ \begin{array}{l} \text{AP} \\ \text{NP} \\ \text{PP} \end{array} \right\}$

30) 「-어 놓다」와 「-어 두다」의 差異에 관해서는 다음 論文이 이를 다루고 있다. 油谷 幸利 (1979), 「-어 놓다」와 「-어 두다」의 意味分析, 「朝鮮學報 第91輯」, pp.1-13.

尾 被動形은 “-어 있다”와 같이 쓰일 수가 있다.

- (45)<sup>31)</sup> a. 문 종이가 찢기어 있다.  
 b. 나무가지가 꺾이어 있다.  
 c. 새 한 마리가 잡히어 있다.

自動詞의 경우에도, 모든 自動詞가 “-어 있다”와 쓰이는 것은 아니다.

- (46) a. \*애기가 자아 있다.  
 b. 애기가 깨어 있다.  
 c. 아이가 여기 와 있다.  
 d. \*아이가 뛰어 있다.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다”와 “뛰다”는 完了形에 붙지 않지만, “깨다”와 “오다”는 完了形에 연결된다. 이것은 “깨다”와 “오다”가 狀態의 變化, 곧 A라는 狀態로부터 B라는 狀態로의 移行을 지향하는 일종의 目標線 내지 限界線(terminus)을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이를테면, “그는 자고 있다”의 “자다” 자체에는 狀態의 變化나, 어떤 目標線내지 限界線을 숨췌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깨고 있다”의 “깨다”에는 “자는 상태”로부터 “깨 상태”로 移行한다는 含蓄, 즉 到達하게 될 目標線 내지 限界線(이하 “限界線”으로 用語를 통일한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깨다”와 같은 동사가 限界線에 도달하면, “깨는過程”이 끝나고 새로운 狀態로 들어간다. 이 새로운 狀態가 繼續될 때 “-어 있다”가 쓰인다. (46)의 “오다”의 “뛰다” 사이에도 꼭 같은 差異를 찾아볼 수가 있다. “오다”는 出發地에서 目的地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지만, “뛰다”를 비롯하여 “기다, 날다, 걸다, 땡글다” 등은 그 語義 자체 내에 目的地를 含蓄하지 않고, 오직 動作의 樣相만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곧 “오다”는, “깨다”와 마찬가지로, 「限界線」<sup>32)</sup>이 있고, 그 限界線에 도달하여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어 있다”라는 完了形이 쓰이는 것이다.

31) (45)와 (46)의 例文은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연구”, 「논의 허용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p.360에서 引用하였음.

32) 「限界線」의 문제는 用語는 다르지만 다음 論文들이 다루고 있다.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연구”, 「논의 허용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pp.359-387.

양인석 (1977),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s in Korea” 「언어」, 2권1호, 한국언어학회. pp.25-39.

Garey, H.B. (1957),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 pp.91-110./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Y. : Cornell Univ. Press. pp.97-121./

Allen, R.L. (1966) *The Verb System of the Present-day American English*. The Hague : Mouton.

4.2. 狀態的 素性和 “have V-en”

「狀態的 (+Stative)」이라는 統辭的 素性에 관하여 Ross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動詞 force는 그 補文의 동사가 [非狀態的(-Stative)]인 素性を 가지는 경우에만 “適格文”을 生成한다. 거꾸로 動詞 seem는 그 補文의 동사가 [+Stative]의 素性を 갖는 경우에만 適格文을 生成한다.

- (47) a. I forced him to
- learn the answer.
  - \* know the answer.
  - \* be sleeping.
  - \* have slept.
  - \* be allowed to leave.
- b. He seems to
- \* learn the answer.
  - know the answer.
  - be sleeping.
  - have slept.
  - be allowed to leave.
  - be bald.

곧, force는 그 補文에 [-Stative] 動詞를 요구하고, seem는 그 補文에 [+Stative] 動詞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完了形인 have slept와 進行形인 be sleeping 이 [+Stative] 素性を 갖는 것이라 하여 일괄되어 있는 점이다. 그렇다고 have slept와 be sleeping이 서로 同一한 關係에 있다고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 共通의 [狀態的]素性を 걸머지고 있는 것은 Perf와 Prog라는 文法的 形式素이지, sleep라는 動詞 자체는 [-Stative] 動詞인 것이다. <sup>33)</sup>

V 狀態的 素性和 進行相

5.1. 狀態的 素性和 “-고 있다” 한국어의 進行形은 동작·과정·상태의 “繼續”과 잠정적인 習慣·未完性·反復등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意味 機能은 그 動詞에 내포되고 있는

33) [狀態的]素性は ‘have+en’ 과 ‘be+ing’ 이라고 보아야 하지, 萬若 have와 be 만이 [狀態的]素性を 갖는다고 한다면, 다음의 I)과 II)의 差異가 III)에는 없음을 說明할 수가 없다.

- I) a. He is having ball.                      b. \*He is having five fingers.
- II) a. He is being quiet.                      b. \*He is being bald.
- III) a. I forced him to be having (a ball/five fingers).
- \*I forced him to be being (quiet/bald).

“限界線”, “瞬間性”, “狀態性”이 左右하고 있다.

“限界線”이 없는 동사(예 : 자다, 뛰다)에는 完了形이 없고, 그 進行形은 동작이나 과정이 進行되고 있다는 뜻만 있을 뿐, 未完成的의 의미는 없다. (예 : \*자아 있다, 자고 있다)

限界線이 있는 동사(예 : 짜다, 쥐다)는 [-Momentary]이면 未完成的의 의미가 있고(예 : 집 한 채를 짓고 있다), [+Momentary]이면 反復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 공을 차고 있다)

또한 限界線에 도달한 다음의 狀態가 (1) 行爲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예 : 모자를 쓰고 있다), (2) 行爲者의 힘으로 유지되고, 또 이러한 狀態를 行爲者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경우에는 進行形으로 “狀態 維持”를 표시할 수 있다. (예 : 돌을 쥐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른바 知覺動詞라고 불리우는 “알다, 믿다, 깨닫다, 뉘우치다, 의우다, 새기다, 바라다, 그리다(思慕), 슬퍼하다, 좋아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등도 進行形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이기동 교수도 지적한 바와 같이<sup>34)</sup>, 現在形에 比하여 自發動사의 進行形은 “暫定的 狀態”의 의미를含蓄하고 있다.

英語에서는 知覺·心理態度를 나타내는 動詞는 보통 進行形을 취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進行形을 취할 수 있다.<sup>35)</sup>

1) 非自動的 知覺(inert perception)으로부터 能動的 知覺(active perception)으로 變하는 動詞(예 : feel, taste, smell, etc.)

- (48) a. I (can) feel the ground.  
I'm *feeling* the ground with my foot.  
b. I (can) taste salt in my porridge.  
I'm *tasting* the porridge, to see if it contains enough salt.

2) 非自動的 知覺으로부터 進行/過程으로 變하는 동사(예 : hear)

- (49) I *am hearing* you clearly.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립니다.

3) 非自動的 認識(inert cognition)으로부터 心的 活動으로 變하는 動詞(예 : think, imagine, suppose, etc.)

- (50) a. I *am thinking* about what you said. (...숙고하고 있습니다.)  
b. Surely you're *imagining* things. (...幻想到 빠지고 있다.)  
c. I'm *supposing*, for the purpose of this argument, that your intentions are unknown.  
(당신의 의도를 모른다고 想定해 본다.)

34) 이기동(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논외 허용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p.383.

35) cf. Leech, G.N. (1971),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pp.22-27.

4) 心的 態度的 正중한 표현으로 進行形을 취하는 動詞(예 : hope, forget, wonder, etc.)

- (51) a. I'm *hoping* you'll give us some advice.  
 b. You *are forgetting* the moral arguments.  
 c. We're *wondering* if you have any suggestions.

Leech에 의하면, 進行形이 正중한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進行形이 갖는 試行的 性格 때문이며, 斷定的인 어조를 갖는 單純形보다도 부드럽게 들린다.<sup>36)</sup> 이를테면, (51a)대신 I *hope* you'll give us some advice.를 쓴다면 聽者에게는 斷정할 餘地가 남겨져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51a)의 文은 話者가 완전한 希望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聽者의 反應에 따라서는 생각을 고칠 수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5) 所有와 存在의 狀態(state of having and being)로부터 活動·演技로 變하는 動詞(예 : be kind, be a fool, be awkward, be difficult, be good, be useful, be helpful, be a nuisance, be an angel, etc.)

- (52) a. She is kind.  
 She is *being kind*. (친절히 대접하고 있다.)  
 b. He's a fool.  
 He's *being a fool*.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c. He's awkward.  
 He's *being awkward*. (일부러 성가시게 굴고 있다.)  
 d. My uncle is Napoleon.  
 Today, my uncle is *being Napoleon*. (獨裁를 부리고 있다.)  
 e. He's sorry/afraid/happy, etc.  
 He's *being sorry/afraid/happy*, etc. (...한 채고 있다.)

6) 所有·存在의 狀態로부터 進行·過程으로 變하는 動詞(예 : resemble, matter, cost, etc.)

- (53) a. He *is resembling* his father more and more as the years go by.  
 b. The income of one's parents *is mattering* less in education these days.  
 c. Good food *is costing* more since devaluation.

知覺動詞는 아니지만, 한국어의 「깨다」도 進行形을 취한다. 英語의 "wake up"은, Vendler와 Macaulay 두 사람 모두, 「完結」동사로 分類하고 있다. 곧,

36) Leech, G.N. (1971), *op.cit.*, pp.24-25.

(54) \*How long did it take you to wake up?

\*It took me three minutes to wake up.

는 모두 “非文”이며, 따라서 進行形을 취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韓國語의 「깨다」는 “그는 잠에서 깨고 있다” 처럼 쓰이며, 그 뜻은 「자던 狀態」에서 「깨 狀態」로 移行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도 “狀態의 變化”를 뒤쫓아가는 한국인의 獨特한 視線을 느낄 수 있다.

5.2. 狀態的 素性和 “be V-ing” Lakoff는 그의 言語理論<sup>37)</sup>에서 「狀態的」이라는 統辭素性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語彙目錄의 動詞, 形容詞 항목에 이러한 素性を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根據는 다음의 여덟 가지 「構文의 틀」에는 「狀態的」동사가 오지 못한다는 데 있다.

(55) a. 命令文에서 :

\*Know the answer !

b. 進行形으로 :

\*Max is knowing the answer.

c. carefully, reluctantly, enthusiastically 등의 副詞와 함께 :

\*Max reluctantly knew the answer.

d. 擬似 分裂文에서 :

\*What Max did was know the answer.

e. do so 構文에서 :

\*Max knew the answer and Bill did so too.

f. remind, persuade와 같은 動詞의 補文에서 :

\*I persuaded Max to know the answer.

g. for someone's sake의 副詞句와 함께 :

\*Max knew the answer for my sake.

h. instead of를 사이에 끼어서 :

\*I knew the answer instead of thinking it out.

위 目錄에 의하면, 「狀態的」동사는 進行形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實際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가 壓例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37) Lakoff, G. (1966), “Stative Adjectives and Verbs in English.”

N.S.F. (Mathematical Linguistics and Automatic Translation. Report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o. 17. Cambridge, Mass. : The Computation Laboratory of Harvard University. pp.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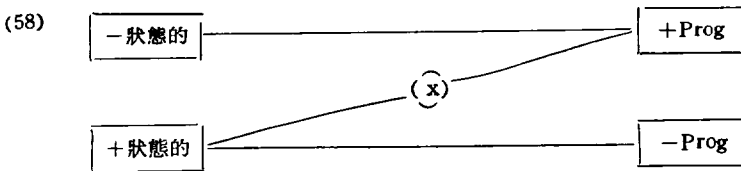


- (56) a. \* I am understanding the doctrine.  
 b. \* Mary is detesting rhubarb.  
 c. \* The bottle is containing milk at this very moment.  
 b. \* The house is belonging to Smith.

그렇다고 “狀態的동사  $\rightarrow$  Prog”라는 定式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56)의 보기와 平行하여, 例外도 많기 때문이다. 다음 (57)의 regret는 G. Lakoff의 規準에서 볼 때, 명백히 [狀態的] 동사이지만, 進行形을 취하고 있는 것이 例外的이다.

- (57) a. \*Regret your lost opportunity.  
 b. I'm regretting it already. —Macaulay, 1971.  
 c. \*I carefully regretted it. —*ibid.*  
 d. \*What Max did was regret his lost opportunity.  
 e. \*Max regretted his lost opportunity and Bill did so too.  
 f. \*I persuaded Max to regret his lost opportunity.  
 g. \*Max regretted his lost opportunity for my sake.  
 h. \*He regretted it instead of expecting to change it. —*ibid.*

이러한 例外가 나오기 때문에 G. Lakoff의 [狀態的] 素性を 측정하는 進行形의 尺度는 완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狀態的] 素性  $\rightarrow$  Prog”라는 定式도 다음과 같이 修正할 필요가 있다.



즉, [狀態的] 동사가운데에는 Prog를 허용하는 어떤 要因(x)이 작용할 때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狀態的] 素性を 지니면 進行形을 취할 수 없는데도, (x)라는 素性が 介入하면 進行形을 가능하게 한다. 이 (x)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 問題이다. 여기에는 “素性的 變化”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acquire는 원래 [非狀態的] 동사로서, Lakoff의 [狀態的] 素性테스트에 逆反應을 나타낸다.

- (59) a. Acquire a cabin cruiser.  
 b. Max is acquiring a cabin cruiser.

그러나 目的語로 a bad reputation라는 NP를 가지게 되면,

- (60)<sup>38)</sup> a. \*Acquire a bad reputation !  
 b. Max is acquiring a bad reputation.  
 c. \*Max reluctantly/enthusiastically/carefully acquired a bad reputation.  
 d. ?What Max did was acquire a bad reputation.  
 e. ?Max acquired a bad reputation and Bill did so too.  
 f. \*I persuaded Max to acquire a bad reputation.  
 g. \*Max acquired a bad reputation for my sake.  
 h. \*I acquired a bad reputation instead of mending my ways.

進行形을 취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非狀態的] acquire가 이 테스트 環境에서는 [狀態的]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곧 [非狀態的] 동사가 [狀態的] 素性を 띠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狀態的] 동사가 [非狀態的] 素性を 띠는 경우도 있다. sicken은 원래 [狀態的] 동사이지만 "John is sickening for ful."<sup>39)</sup> (=존은 유행성 감기에 걸려 가고 있어.)처럼 進行形을 취함으로써 [非狀態的] 素性を 띠어간다. 이러한 "素性變化"의 事例를 검토할 때, Prog를 가능케 하는 要素(x)는 「狀態」와 「非狀態(=活動)」 사이에 끼는 中間的 素性으로 상정된다. 어떤 상태가 始動하여 변화를 이르게, A의 상태에서부터 B의 상태로의 推移(transition)를 보이는 경우 나타나는 素性으로서, 이 素성이 進行形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sup>40)</sup>

한국어의 形容詞는 完了形에도 進行形에도 쓰일 수가 없다. 形容詞는 원래 狀態를 가리키는 말이며, 거기에는 이미 "—어 있다"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形容詞文도 (52)의 例文에서 본 것처럼 進行形을 가질 수 있다. (예: She is being kind.)

또, 한국어에서는 名詞 構文을 만드는 指定詞에 진행형 "—고 있다"가 쓰이지 못하지만 (예: \*그는 바보이고 있다), 영어에서는 (52 b.), (52 d.)의 例文처럼 名詞構文도 進行形을 취할 수 있다. (예: He's being a fool.) 그러나 이러한 進行形은 所有·存在의 狀態(state of having and being)로부터 活動·演技로의 변화를 보이는 動詞句로서, 실은 [狀態的] 素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進行形을 취할 수 없는 動詞句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38) Lee, David (1973), "Stative and Case Grammar." *Foundations of Language*. 10. pp. .545—568에서 引用.

39) Ibid.

40) 한국어의 경우, "안다: 알고 있다" "믿다: 믿고 있다" "기뻐한다: 기뻐하고 있다"의 差異를 이기동 교수는 「暫定」 「非確定」 「判斷의 可變性」으로 보고 있다. cf. 이기동(1978), *op.cit.*, p.383.

- (61) a. She is tall.  
       \*She is being tall.  
 b. The trees are green.  
       \*The trees are being green.  
 c. My uncle is a human being.  
       \*My uncle is being a human being.

그 위에, Lakoff의 [狀態的] 素性 테스트를 해보면 (52)의 "be+Adj/N" 例文은 命令文이 있을 수 있다. (즉, [非狀態的]이다.)

- (62) Be kind. | Don't be a fool. | Don't be awkward. |  
 Be good. | Be helpful. | Don't be a nuisance.

한편, (61)의 動詞句는 [狀態的] 素性을 지니기 때문에 Lakoff의 테스트에 걸린다.

- (63) \*Be tall. | \*Be green. | \*Don't be a human being.

#### IV 英語 狀態表現의 例文 分類

이 分類에 사용된 例文의 出典은 서울 文化放送에서 매일 방송되고 있는, 민병철저 「생활영어」 1, 2, 3권이다. 약간 俗語的 表現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살아 있는 英語라 할 수 있으며, "educated native speakers of American English"가 면밀히 검토한 教材인 만큼 미국 영어의 實態를 잘 反映한, 平易하고도 安心할 수 있는 言語 材料로 판단된다. 紙面 關係로 大部分의 例를 생략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한국어에서라면 動作的 表現이 쓸일 것인데도, "be"動詞 中心의 狀態 表現이 쓰이고 있는 數目이 실로 不知其數이다. 영어가 얼마나 狀態 表現을 좋아하는가를 切感하게 한다. 이러한 狀態 表現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보았다. (MBC 3: 235)와 같은 數字는 예문 出處가 "민병철, 「생활영어」 제2권, 235페이지"임을 뜻한다.

- (62) a. 名詞構文 [N<sub>1</sub> be N<sub>2</sub>]  
 b. 形容詞構文 [N be Adj]  
 c. 副詞構文 [N be adj]  
 d. 前置詞句 構文 [N be PP]  
 e. 被動文 [N be V-en]

- f. There 構文
- g. Have 構文

6.1. 名詞構文 한국어에서는 動詞와 形容詞를 표현의 中心으로 삼지만, 영어에서는 名詞 中心의 경향이 強하여,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뜻을 "He is a good singer"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세다. 이 英文을 「그는 훌륭한 歌手이다」라고 번역하면 "誤譯"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 (63) a. You are an excellent cook.
- b. He is a good pianist.
- c. She is an excellent swimmer.

도 「뛰어난 料理師이다」, 「훌륭한 피아노 演奏家이다」, 「우수한 水泳 選手이다」에 對應하지 않는다. (63)은 각각 You cooks very well. He plays the piano well. She swims very well. 과 거의 같은 뜻을 지닌다. 다만, 名詞 表現은 動詞나 形容詞보다도 다소 強意的인 느낌을 준다. He cooks well. 과 He is a good cook. 사이에는 그다지 差異를 느낄 수 없지만, 이를테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얼마 안되는 女學生의 演奏를 評할 때, "She plays the piano well." 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She is a good pianist." 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는 적어도 數年間の 修練이 필요할 것이다. He is foolish. 는 "What he does is not sensible." 정도이지만, He is a fool. 는 그의 資質을 "바보"로 斷定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어쨌든 名詞構文은 간결하고 힘찬 표현이어서 영어 표현의 主役이 되고 있다.

— 名詞構文(N<sub>1</sub> be N<sub>2</sub>)의 例 —

- |  |   |
|--|---|
| (1) I paid \$120.00. — <i>That's a rip off.</i><br>(MBC 1: 30)   | 120불 줬어. — 바가지 썼구나.                                 |
| (2) What do you do there? — <i>I'm a machine setup man.</i> (MBC 1: 63)                                  |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 기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
| (3) It's a pleasure to meet you. — <i>The pleasure is all mine.</i> (MBC 1: 78)                          | 만나뵈게 되어서 기쁩니다. — 저도 역시 반갑습니다.                       |
| (4) <i>Dogs are my favorite.</i> (MBC 1: 94)   | 개를 제일 좋아해요.   |
| (5) How do I get to the National Museum from here? — <i>I am a stranger here myself.</i><br>(MBC 1: 116) | 여기서 국립박물관까지 어떻게 갑니까?<br>— 저도 이 근방은 초행입니다.           |
| (6) Guess who I saw yesterday. Marge White.<br>— Really? <i>It's a small world.</i> (MBC 1: 131)         |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맞춰 봐요. 와이트를 봤어요. — 정말이야? 세상 참 좁군. |
| (7) <i>You are an excellent cook.</i> (MBC 1: 149)   | 요리 솜씨가 훌륭하시군요.                                      |

- |  |  |
|--|--|
| (8) Next time lunch is on me.-- O.K. <i>That's a deal.</i> (MBC 1:209)   | 다음번 점심은 내가 내지, -그래. 그렇게 하자.                                    |
| (9) <i>She's really something.</i> (MBC 1:252)   | 그녀는 정말 근사하던데.  |
| (10) I'm sorry. <i>What was your name again?</i> (MBC 2:68)  | 미안합니다만, 성함이 뭐라 그러셨던가요?   |
| (11) I'd love to go with you, but I'm low on money. -That's all right. <i>It will be my treat.</i> (MBC 2:124)             | 당신하고 정말 함께 가고 싶은데, 돈이 떨어졌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내지요.                   |
| (12) Why not? - <i>I'm all thumbs.</i> Even at home, I'm constantly dropping everything. (MBC 2:295)                       | 왜 안되지요? -저는 손재주가 없으니까요. 집에서든 항상 물건들을 떨어뜨립니다.                   |
| (14) <i>That was a close call.</i> Another inch and you'd be dead. (MBC 3:102)   |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하셨군요. 한 치만 더 나갔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 하셨읍니다.                 |
| (15) I hear Frank is behind in his rent. - <i>That's a shame.</i> (MBC 3:128)  | 프랭크가 집세 못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아주 안됐군요.                           |
| (16) <i>It's a pain</i> in the neck. (MBC 3:140)   | 정말 지겨운 일입니다.   |
| (17) I thought you said the party was on Saturday. - I did, but I was wrong. <i>It's a slip of the tongue.</i> (MBC 3:158) | 저는 당신이 파티가 토요일에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죠. -그랬었지요. 내가 잘못 얘기한 것이었오. 실언이었지. |
| (18) May I use your pen? - <i>Be my guest.</i> (MBC 3:206)   | 펜 좀 쓸까요? -어서 쓰십시오.   |
| (19) <i>I'm not myself</i> today. (MBC 3:301)  | 오늘은 내 정신이 아니야.   |

4.2. 形容詞 構文 [N be Adj] 한국어의 變化와 移動을 보이는 動詞類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移動과 變化의 結果로 일어난 狀態”만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서는 「電池가 다 닳아 버렸다」라고 變化의 過程까지 나타내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The batteries are dead.”라고 結果의 “狀態”만을 나타낸다.

— 形容詞 構文의 例 —

- |  |                                 |
|--|---------------------------------|
| (1) Thank you. - <i>You're welcome.</i> (MBC 1:51)                                 |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
| (2) <i>Are you free</i> tomorrow?<br>- Yes, I am. (MBC 1:56)                       | 내일 시간이 있으세요?<br>-네, 있습니다.       |
| (3) I hear you purchased a new house.<br><i>Are you happy with it?</i> (MBC 1:106) | 새 집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br>집이 마음에 드세요? |

- |   |   |
|---|---|
| (4) <i>Are you ready to order now, sir?</i><br>(MBC 1 : 109)  | 주문 하시겠습니까?  |
| (5) <i>What's wrong with the drain?</i><br>-It's clogged with hair. (MBC 2 : 271)                       | 하수구가 어찌된 일입니까?<br>-머리카락으로 막혔습니다.                    |
| (6) <i>She was very upset.</i> (MBC 1 : 171)  | 그녀가 매우 상심해 있더군요.                                    |
| (7) <i>The traffic was bumper to bumper this morning.</i> (MBC 1 : 91)                                  | 오늘 아침에 교통이 매우 복잡했어요.                                |
| (8) <i>Don't be silly.</i> (MBC 1 : 209)  | 그러지 마세요.  |
| (9) <i>I'd be happy to join you for dinner.</i><br>(MBC 1 : 263)  |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
| (10) <i>When will my pictures be ready?</i><br>You can pick them up next Wednesday.<br>(MBC 2 : 30)     | 언제 사진이 완성될까요?<br>다음주 수요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 (11) Do you like chocolate?<br>- Yes, I'm mad/crazy about it.<br>(MBC 2 : 50)                           | 너는 초코렛을 좋아하니?<br>-응, 난 굉장히 좋아해.                     |
| (12) <i>He is mad at me.</i> (MBC 2 : 54)   | 그는 나에게 화 나 있다.                                      |
| (13) I'd like to borrow it, if <i>that's all right with you.</i> (MBC 2 : 62)                           | 괜찮으시다면 그것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하구요.                          |
| (14) Janet is <i>through with</i> Steve.<br>- You mean she's never going to see him again? (MBC 2 : 64) | 재밌은 스티브와 절교 했대요. -그녀가 그와는 다시 안 만난다는 건가요?            |
| (15) <i>Are you through with your call?</i><br>--Yes, operator. Thank You. (MBC 2 : 64)                 | 통화를 다 하셨나요?<br>-네, 교환양 감사합니다.                       |
| (16) <i>I'm broke.</i> - Oh, come on!<br>--Seriously, I'm flat broke. (MBC 2 : 93)                      | 돈이 다 떨어졌지요. -농담이시겠지요!<br>-정말입니다. 일전 한푼도 없는 빈털털이입니다. |
| (17) I'm sorry that <i>line is busy.</i> (MBC 2 : 114)  | 죄송합니다만 통화중인데요.                                      |
| (18) <i>I'm low on money.</i> (MBC 2 : 124)   | 돈이 떨어졌군요.   |
| (19) <i>It must be rough for his family.</i><br>(MBC 2 : 124)   | 가족이 참 어렵겠군요.  |
| (20) Don't you think it's going to be <i>difficult</i> marrying out of your race? (MBC 2 : 160)         | 타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
| (21) I <i>got sick and tired</i> of hotels and hotel food. (MBC 2 : 178)                                | 호텔 생활과 호텔 음식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
| (22) <i>Are you ready for dessert?</i><br>(MBC 2 : 235)   | 후식올 드실 수 있겠어요?                                      |

- |   |  |
|---|--|
| (23) It sure goes well with your suit.<br>(MBC 2 : 258)                                       | 입으신 양복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
| (24)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br>- Go ahead. It will be safe with me.<br>(MBC 3 : 29)   | 제 가방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br>-어서 다녀 오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잘 보아 드리겠습니다. |
| (25) But I took a different route, and the traffic was very light. (MBC 3 : 110)              | 그렇지만 다른 길로 타고 가서, 차가 별로 없었지요.                          |
| (26) I hope I'm not imposing on you.<br>-No. Feel free to stay here anytime.<br>(MBC 3 : 206) | 페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요.<br>-아닙니다. 서슴치 마시고 언제든지 이곳에서 머무십시오.     |
| (27) What are your chances of getting into Harvard?<br>- Chances are slim. (MBC 3 : 114)      | 하바드 대학에 진학할 가망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br>-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 (28) I bet the batteries are dead.<br>(MBC 3 : 265)   | 전지약이 다 닳은게 틀림 없어요.                                     |

6.3. 副詞構文 [N be Adv] 「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를 영어에서는 "I'm off tomorrow." 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變化"에 視點을 두는 한국어와, 結果로서 존재하는 또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狀態"에만 注目하는 영어의 差異라 할 수 있다.

— 副詞構文의 例 —

- |  |   |
|--|---|
| (1) Hi, Tom. What's up? - Not much.<br>(MBC 1 : 43)  | 안녕, 탐. 새로운 일이라도 생겼나? - 별로야.                   |
| (2) Is he in? (MBC 1 : 166)  | 그분(Mr. Logan) 계신가요.                           |
| (3) Let me see that blue tie. - Here you are.<br>(MBC 1 : 81)                              | 저 푸른색 타이 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
| (4) Where are you from? (MBC 1 : 174)  | 고향이 어디세요?                                     |
| (5) Single file, Please. - But we're together.<br>(MBC 2 : 99)                             | 한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행입니다.              |
| (6) Shall we get together this Sunday?<br>(MBC 1 : 164)                                    | 이번 일요일에 함께 만날까요?                              |
| (7) I'm off tomorrow. It'll give me a chance to catch up on my sleep. (MBC 2 : 74)         | 내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동안 못갔던 잠을 잘 수 있을거예요.     |
| (8) Would you mind if we go bowling instead of a movie?<br>- It's up to you. (MBC 2 : 154) | 영화 대신에 볼링하러 가는 것이 상관없으시겠어요?<br>-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

- (9) *What have you been up to lately?*  
- Nothing much besides work. (MBC 2 : 154)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는 것 외엔 별 일 없습니다.
- (10) *I'm dying for a coke!*  
- Okey. *Here we are.* (MBC 3 : 183)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어 죽겠어요! - 좋습니다.  
다 왔군요.
- (11) *Time is almost out in the meter. Should I put another dime in?* (MBC 2 : 289)      미터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군요. 다임을 하나 더 넣을까요?
- (12) *I'm far from being a baker, but I can help.* (MBC 3 : 122)      저는 빵 굽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지만, 도와드릴 수는 있지요.

6. 4. 前置詞句 構文 [N be PP] 變化·過程을 쫓아가는 한국어의 視線은 「그분은 곧 돌아와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生成하지만, 영어에서는 「1分 後에는 당신과 함께 있다(He'll be with you in a minute.)」式으로 移動·從事·活動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任意 時點에 있어서의 靜止의 狀態로 파악 표현하고 있다.

— 「가다, 오다」를 뜻하는 前置詞句 構文의 例 —

- (1) *He'll be with you in a minute.* (MBC 1 : 46)      곧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 (2) Do you think *she'll be back* before one o'clock? (MBC 3 : 142)      그분이 1시 이전에 돌아 오실까요?
- (3) Is Jack in? - I'm sorry, but *he's out* to lunch. (MBC 1 : 68)      잭이 안에 있나요? -미안합니다만, 점심 식사하러 나갔는데요.
- (4) What time do you want *me to be there?* (MBC 1 : 357)      몇 시에 제가 거기로 갈까요?
- (5) *I'm on my way* to the library. (MBC 1 : 98)      도서관에 가는 중이야.
- (6) What time do you have to *be at work?* (MBC 2 : 30)      당신은 직장에 몇시까지 가야 합니까?
- (7) *I was at the dentist.* (MBC 3 : 73)      치과에 갔었습니다.
- (8) Could you give me a lift home? -No problem. *It's on the way.* (MBC 2 : 30)      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시겠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가는 길이니깐요.
- (9) *I'll be by your place* at 7, if you need a ride. (MBC 2 : 30)      만일 차편이 필요하시다면 7시까지 댁으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 (10) I have to *be at a meeting* by 4. (MBC 2 : 287)      4시까지 회의에 도착해야 합니다.
- (11) Jack, let's take our break. -O.K. *I'll be along* in a second. (MBC 2 : 197)      잭, 잠깐 쉬자꾸나. -좋아. 잠깐만 하던 일을 하고나서.



- |   |  |
|---|--|
| <p>(12) We have an opening in the sales department. Please come in for an interview. — Thank you. <i>I'll be in</i> this afternoon. (MBC 2 : 224)</p> | <p>판매부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면접하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p> |
| <p>(13) Will Jim be here tomorrow? —No, <i>he's out of town</i> for the week. (MBC 2 : 82)</p>  | <p>짐은 내일 출근하나요? —아니오, 한 주일 동안 다른 도시에 가 있어요.</p>              |

— 「직업·근무·종사를 뜻하는 前置詞句 構文의 例」 —

- |   |   |
|---|---|
| <p>(1) <i>I'm with Sears, Roebuck and Co.</i> (MBC 1 : 15)</p>  | <p>씨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p>                       |
| <p>(2) <i>I'm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i> (MBC 1 : 15)</p>   | <p>판매부를 책임 맡고 있습니다.</p>                       |
| <p>(3) <i>Mr. Tate is on the phone.</i> He'll be with you in a minute. (MBC 1 : 46)</p>                         | <p>테이트씨는 지금 전화 받고 계십니다. 곧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p>   |
| <p>(4) One moment, Please. (a few minutes later) Your party <i>is on the line.</i> Go ahead. (MBC 2 : 116)</p>  | <p>잠깐 기다리세요. (잠시후) 상대방 전화가 나왔습니다.</p>         |
| <p>(5) <i>He's on a coffee break.</i> (MBC 2 : 197)</p>   | <p>그는 커피 마시며 잠깐 쉬고 있어요.</p>                   |
| <p>(6) Someone broke into my house while <i>I was on vacation.</i> (MBC 2 : 209)</p>                            | <p>내가 휴가중이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했었어요.</p>         |
| <p>(7) How long have you been with the company —I've been with them a little over three years. (MBC 1 : 63)</p> | <p>그 회사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p> |
| <p>(8) <i>Is Mr. Brown at his desk?</i> — Yes, but he's tied up at the moment. (MBC 2 : 377)</p>                | <p>브라운씨가 자리에 계신가요? — 네, 하지만 지금 무척 바쁘시군요.</p>  |
| <p>(9) Mr. Kim <i>has been out of work</i> for three months. (MBC 2 : 124)</p>                                  | <p>김씨는 3개월간이나 실업자랍니다.</p>                     |

— 「기타 활동을 뜻하는 前置詞句 構文의 例」 —

- |   |                                  |
|---|----------------------------------|
| <p>(1) Mr. Methven <i>is in conference.</i> (MBC 3 : 152)</p>                         | <p>메스븐씨는 지금 회의중입니다.</p>          |
| <p>(2) <i>I've been completely out of touch</i> with my old friends. (MBC 3 : 37)</p> | <p>저는 옛 친구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p> |
| <p>(3) <i>Are you at this number</i> all the time? (MBC 1 : 51)</p>                   | <p>이 번호로 항상 연락이 되나요?</p>         |

- |   |  |
|---|--|
| (4) "Network" is at the Libera. (MBC 1 : 196)   | 리베라에서 「네트워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
| (5) He's usually on time. (MBC 1 : 204)   | 그는 대개 정각에 오지.                                  |
| (6) Lunch is on me. (MBC 1 : 209)   | 점심은 내가 사죠.                                     |
| (7)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MBC 2 : 88)  | 천천히 합시다. 나는 급하지 않은데요.                          |
| (8) I'm in a hurry. Can you wait on me? (MBC 3 : 99)  | 몹시 급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겠어?                           |
| (9) I hope these papers are in order. (MBC 2 : 393)   | 서류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
| (10) This phone is out of order. (MBC 2 : 132)  | 이 전화는 고장입니다.                                   |
| (11) My car is out of gas. (MBC 2 : 124)  | 이 차는 휘발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
| (12) What's on your mind? (MBC 2 : 166)   |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 (13) Are you out of your mind? (MBC 2 : 168)  | 정신 나갔어요?                                       |
| (14) It sounds like you're really in trouble. (MBC 2 : 173)                                       | 정말 큰일 나신 것 같군요.                                |
| (15) We're in the same boat. With both boys in colleg, it has been tough. (MBC 2 : 219)           | 서로 같은 처지입니다. 사내 아이들이 둘이나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
| (16) Do you know if \$200 would be in the ball park? -I think you are a little low. (MBC 2 : 348) | 200불이면 비슷하게 들어 맞는 것 같아요?<br>-금액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
| (17) It'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MBC 3 : 17)                                       | 선착순입니다.  |
| (18) Excuse me. Are you in line? (MBC 3 : 25)   | 실례합니다. 줄에 서 계십니까?                              |
| (19) I'm not sure. They may be out of stock. (MBC 2 : 65)   | 확실치는 않지만 다 팔렸는지도 모르겠군요.                        |
| (20) My mother was in a car accident. (MBC 2 : 71)  |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
| (21) Traffic was at a standstill on the express way. (MBC 2 : 110)                                |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밀려서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
| (22) I'm afraid politics is beyond me. (MBC 2 : 122)  | 정치는 저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
| (23) I'm a little behind in my studies. (MBC 2 : 128)   | 공부는 약간 밀렸어요.                                   |
| (24) Ge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but I can't quite remember. (MBC 3 : 156)                 | 참, 혀끝에서 뱀뱀 뱀도는데 기억이 안 나는군요.                    |

6.5. 被動構文 [N be V-en] 흔히 영어의 被動態의 의미는 「動作」과 「狀態」로 大別되지만, 「狀態」의 被動態는 “被動態”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確然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be+過去分詞」의 過去分詞가 形容詞로 느껴져서, 被動의 의미가 稀薄해지기 때문이다. 「動作」을 뜻하는 被動態文에서도, 영어는 關心이 큰 쪽을 主語로 삼아서 “He began to speak, but was not heard.” 式으로 어디까지나 “He”를 主語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는 연설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식으로 主語를 바꾸어 能動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被動文의 例 —

- |   |  |
|---|--|
| (1) <i>I'm employed</i> at TIJ Water Company.<br>(MBC 1: 17)  | TIJ 수도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 (2) <i>I'm stuck</i> at the corner of Clark and Wilson. My engine died and I can't get it started.(MBC 1: 239)                                  | 내가 클락과 윌슨 거리의 모퉁이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어 내 차 엔진이 꺼졌는데 시동을 걸 수 없구나.                          |
| (3) <i>I was locked out of my car.</i> (MBC 2: 16)  | 차가 안으로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
| (4) <i>Are you finished with that book</i> about jogging?(MBC 2: 62)  | 자정에 관한 그 책을 다 읽으셨나요?   |
| (5) We'll have to charge you around \$350.<br>—Oh, come on, <i>I wasn't born yesterday.</i><br>That's a little steep, isn't it?<br>(MBC 2: 158) | 350불은 내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 물정에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격이 좀 터무니 없는 것 같군요. |
| (6) In fact, <i>I'm headed</i> for the admission office now.(MBC 2: 229)  | 사실은 지금 등록하러 사무실에 가는 길이야.   |
| (7) <i>When am I entitled</i> to a raise?<br>(MBC 2: 243)   | 제가 언제 급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될까요?  |
| (8) I'm sorry, but <i>he's tied up</i> at the moment. — <i>When will he be free?</i> (MBC 2: 275)   | 미안합니다만 지금 몹시 급한 일에 매여 계신데요. — 언제 시간이 나실까요?   |
| (9) Can you have lunch with me tomorrow?<br>— I'm sorry. <i>I'm booked solid</i> all week.<br>(MBC 2: 289)                                      | 내일 저와 점심 식사하실 수 있겠어요? — 미안합니다. 이번 주 점심 약속이 다 꽉 차있군요.                               |
| (10) <i>Are you being waited on?</i> — No, I'd like to have some coffee.(MBC 3: 67)   | 주문을 하셨나요? — 아니요, 커피 좀 부탁드립니다.  |
| (11) <i>Have you been served?</i> — No, we'd like to order now.(MBC 3: 67)  | 주문을 하셨습니까? — 아니요, 지금 주문을 하지요.  |

- |  |   |
|--|---|
| <p>(12) Oh, about what? —About my ideas for improving production. — Can you fill me in? <i>I'm interested.</i> (MBC 3 : 216)</p> <p>(13) He's too lazy to do very much. — Right. <i>I'm fed up</i> with him. (MBC 3 : 247)</p> <p>(14) Did the cashier give you the correct change? —No, she didn't. <i>I got short-changed.</i> (MBC 3 : 273)</p> <p>(15) The restaurant on the corner has gone out of business. — <i>I'm not surprised.</i> The food was terrible. (MBC 2 : 124)</p> | <p>오,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생산 증진을 위한 나의 견해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가 있는데 저에게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p> <p>그 친구는 너무 게을러서 일을 별로 못하지. —맞아. 그 친구라면 진절머리가 난다.</p> <p>출납 계원이 거스름돈을 옳게 주었나요? —아니오, 그렇지 않았어요. 덜 받았어요.</p> <p>그 길모퉁이에 있는 음식점은 망해서 문을 닫았 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음식이 형편없었 으니까요.</p> |
|--|---|

6-6. There 構文 There構文 은 어떤 事物의 존재(existence)만이 아니라, “존재하게 될 것(coming into existence)도 나타나며, 따라서 일반적 現象의 기술에 빈번히 쓰이고 있다. 특히 主語를 文中 또는 文尾에 돌림으로써 聽者로 하여금 「무엇이……?」라는 期待感을 부풀게 하는 心理的 效果가 있다. 그리고, 주어가 文의 中間에 오는 경우, 거기에 形容詞句, 現在分詞, 過去分詞 또는 關係節이 이어짐으로써, 「存在」의 의미와 後續語句의 의미가 겹쳐지고, 서로 溶合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어에서는 이를테면 「그의 노크 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動作的”으로 표현할 곳을 “There was no reply to his knocking.”라고 어떤 時點에 있어서의 靜止의 「存在」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인다.

— There 構文의 例 —

- |  |  |
|--|--|
| <p>(1) <i>There's a new Clint Eastwood movie playing</i> at the Granada. (MBC 1 : 263)</p> <p>(2) How often do you watch the late movie? — I only watch when <i>there's a western on.</i> (MBC 1 : 199)</p> <p>(3) <i>Is there any set time</i> for the morning break? (MBC 2 : 195)</p> <p>(4) I'm going as fast as the law allows now. — <i>There's an extra five bucks in it for you</i> if you get me there in time. (MBC 2 : 287)</p> <p>(5) <i>Isn't there a sale</i> on suits at Ward's? (MBC 3 : 19)</p> | <p>그라나다에서 새로 나온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죠.</p> <p>얼마나 자주 TV에서 밤늦게 하는 영화를 시청하 세요? —저는 서부활극인 경우에만 봅니다.</p> <p>아침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p> <p>속도 제한 범위에서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나들 시간내에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5불 을 더 주겠요.</p> <p>워스에서 양복 세일을 하지 않습니까?</p> |
|--|--|

- |  |   |
|--|---|
| (6) Let's get to the point, Mr. Lee. <i>Is there something on your mind?</i><br>(MBC 3 : 89)                 | 미스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
| (7) Do the trains often run slow in Chicago?<br>- Only when <i>there's heavy snow.</i><br>(MBC 3 : 140)      | 시카코에서는 기차가 종종 늦게 운행되나요?<br>- 눈이 많이 올 때만 그렇지요. |
| (8) <i>There was a breeze stirring the trees.</i><br>(RHD)   | 산들바람이 나무가지들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
| (9) <i>There'll be hot meal ready.</i> (RFD)   | 따뜻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 (10) We don't want <i>there to be another war.</i><br>(RHD)  |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
| (11) <i>There's a war on.</i> (J. Hersey)  |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
| (12) <i>There was a big connection</i> in front of the house.(E. Caldwell)                                   | 그 집앞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었다.                           |
| (13) <i>There was much traffic</i> at night and <i>many mules</i> on the road.(Hemingway)                    | 밤에는 많은 군인과 노새가 오고 갔다.                         |
| (14) <i>There was the sound of a brief struggle, a half-articulate cry, then silence.</i><br>(E. S. Gardner) | 집안 다투는 소리, 뭔가 비명같은 소리가 들리고, 곧 잠잠해졌다.          |

6.7. Have構文 「所有」를 뜻하는 have의 표현에도 無生物을 主語로 하는 경우가 많다. 「存在」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所有」의 표현 형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에 對應하는 한국어의 표현은 無生物을 副詞句에 넣어 「所在」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have構文에서는 “動作名詞”를 have의 目的語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이 注目된다. (예 : have a lucky dream/have a talk)

— Have 構文의 例 —

- |  |   |
|--|---|
| (1) How can I reach him? - Ask Sue.<br>Andrea and Sue are his friends. I'm sure <i>one of them will have his number.</i><br>(MBC 1 : 53) | 그 친구와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br>- 추에게 물어봐. 앤드리아하고 추는 그의 친구이니 둘 중의 하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것이야. |
| (2) <i>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i><br>(MBC 1 : 53)  | 정말 모르겠는데요.  |
| (3) I hear <i>you have a cold.</i> (MBC 1 : 169)   | 감기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
| (4) <i>He had a car accident</i> and broke his arm.(MBC 1 : 169)   | 그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네요.   |

- (5) The coffee was very good. *May I have a refill.* (MBC 1 : 231) 커피 맛이 참 좋습니다. 다시 잔을 채워 주시겠어요?
- (6) Do you have any particular tennis court in mind? -- Yes. *I have one place in mind.* (MBC 1 : 265) 생각나는 좋은 정구장이라도 있으세요? -- 네. 마음에 드는 한 곳이 있죠.
- (7) *Don't you have school tonight?* -- No, we're through for the summer. (MBC 2 : 62) 오늘 밤엔 수업이 없으세요? -- 없어요. 여름 동안에는 없답니다.
- (8) Are you also working on weekends? -- *I have every other weekend off.* (MBC 2 : 76) 주말에도 역시 일하니? -- 2주에 한번씩 주말에 쉽니다.
- (9) Do you have a fever? -- No, *I just have a runny nose.* (MBC 3 : 186) 열이 있으신가요? -- 열은 없지만, 콧물이 납니다.
- (10) Hello. May I speak to Mr. Brown? -- *You have the wrong extension.* (MBC 2 : 103) 여보세요. 브라운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 구내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 (11) *I'll have my fingers crossed that everything goes well.* (MBC 2 : 293) 만사가 순조롭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 (12) *Please have a seat* and our personnel manager will be with you in a minute. (MBC 2 : 293) 앉아 계시면 인사 과장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 (13) *Why does she have such a long face?* -- I don't have the vaguest idea. (MBC 3 : 41) 왜 그녀가 저렇게 시무룩하지요? -- 왜 그런 전혀 모르겠는데요.
- (14) *We're having some friends for dinner.* Can you make it? (MBC 3 : 79) 몇몇 친구들 초대해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올 수 있겠니?
- (15) What do you think of the mayoral election? -- I think *Wilson has a good chance.* (MBC 3 : 116) 시장 선거에 누가 이길까요? -- 제 생각으론 윌슨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16) *I have a stuffed-up head and a sore throat.* (MBC 3 : 188) 머리가 멍하고 목이 따갑습니다.

## VII 結 言

「그는 美國에 가 있다」를 “He is in the U. S.”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英語에서는 처음  
 에서부터 “狀態”로 파악하고, 그 事件·現象의 最初에 일어났던 動作·作用은 眼中에 없다는  
 듯한 표현이다. 이와는 달리 韓國語는 「……가 있다」처럼 最初의 動作·作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동작·작용의 結果로서의 狀態를 표현하는 데는 存在表現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存在表現 “壁에는 西洋畫가 있다/있었다” 보다는 “西洋畫가 걸려 있다/있었다”  
 가 自然스럽다. 이런 경우, 英語에선 “걸려 있다”에 해당되는 “hang”를 쓰는 것은 매우 어  
 색하다. 바로 “There is/was a picture on the wall”라고 there構文을 써서 現在 또는 當時  
 의 存在를 나타낸다. 한국어의 變化의 出現이나 移動을 보이는 動詞類에 대하여도 英語는 移  
 動·變化의 結果로 생기는 狀態만을 나타낸다. 韓國語는 視点を 移動시키면서 變化를 쫓아가  
 고, 英語는 視点を 固定하여 어떤 時점에 있어서의 狀態性에만 注目하고 있는 것이다.

要컨데, 어떤 變化過程의 時間的 分布를 바라볼 때, 그 事態의 맨 처음에 일어났던 變化와  
 動作을 翹及하여, 마치 rewinding하는 video tape를 따라가는 듯한 韓國語의 視点과, 이와는  
 달리 目前의 存在나 狀態를 그대로 “靜”으로서 言語表現의 camera에 담은 英語의 視点에, 각  
 각 動作性和 靜止性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는 動作的 表現, 영어는 靜止的 表現  
 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981. 1. 31)

— Summary —

##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English Stative Expressions

*Soo-un Kang*

This paper has attempted to compare "stative expressions" in English with those in Korean from semantic and pragmatic point of view. Both English and Korean verbs refer either to an event or to a state, but in Korean there are very few verbs which are exclusively used as "state verbs." Instead, in Korean, the compound verb structures "—고 있다" and "—어 있다" are used to denote the existence of state as the result of a perfected action or process. For example, the English sentence, "Mr. Kim is in the U.S." is equivalent to the Korean sentence, "김군은 미국에 가 있다. (Literally, Mr. Kim went and is in the U.S.)" Here, the Korean speaker interprets the state of Mr. Kim's being in the U.S. as the result of Mr. Kim's intentional action, "going over to the U. S. ; while the English speaker simply cognizes what kind of state exists before his eyes, or at a given time.

Any stative phenomenon can be viewed either as a certain state existing at a certain time, or as a result of a perfected action or process. The English speaker seems to be inclined to view such an extralinguistic phenomenon as a state which exists under his eyes and get it into his "linguistic camera" as if to photograph *still life*.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peaker interprets a state as a result of an action or process, and traces back the past action or process to its original point as if to follow and watch a video tape which is being played in reverse. This seems to be the reason why there are by far more stative expressions in English than in Korean. In this sense, it is permissible to say that English expressions are "stative" and Korean expressions "actional".